

집중력 유도 솔루션의 차세대 선두주자

두뇌 과학 혁명을 꿈꾸는 메가브레인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집중력 저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기업, 메가브레인이 나섰다.

불유 여력

e-러닝 시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강일 대표는 온라인 강의가 양적 측면으로만 팽창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한 부분이 바로 'e-러닝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오랜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뇌파를 응용한 e-러닝 집중력 유도 솔루션을 개발해낸 그는 메가브레인 창업과 특허출원이라는 성과까지 한번에 이루어냈다. 창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학생 신분으로 사회에 부딪히며 느꼈던 크고 작은 벽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어린 것이 아니라 젊은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일념으로 즐겁게 일했다. 또한 '있는 힘을 남기지 않고 다하라'는 '불유여력(不遺餘力)'의 의미를 되새기며 늘 최선을 다해왔다.

두뇌 혁명

집중력 향상 소프트웨어는 바이노럴비트음을 발생시켜 학습자의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바꿔주는 것. 알파파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뇌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파동이다. 이 상태가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집중력이 최고 상태에 이르게 된다. 메가브레인의 인체공학적인 뇌파유도 프로그램 '브레인파워'를 이용하면 알파파가 약 15% 증가하고 집중력 지속 시간도 15분가량 늘어나는 등 상당한 강의 집중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연구결과 나타났다. e-러닝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접목이 가능하며 알파파와 베타파, 세타파 등 다양한 뇌파를 유도하거나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뇌파 동조를 이용한 다이어트 뇌파, 금연 뇌파 기술이 결합된 온·오프라인 제품도 연구개발 중이다.

패기

메가브레인의 강점은 젊음과 열정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20~30대로 구성되어 있어 세대 간 격차가 거의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된다고 믿는 이강일 대표. 그가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아이디어와 상업적 요소의 결합이다. 초기에는 조직력이나 기술력, 자본, 아이템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가며 시장에 진입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성공적인 창업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평생교육사이트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메가브레인.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시도하고 도전하는 청년 벤처인답게 패기 넘치는 행보가 기대된다.

메 가 브 레 인

• 대표 : 이강일 • 설립일 : 2004년 3월 • 시원수 : 7명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 홈페이지 : www.megabrain.co.kr

• 주요연혁 2004. 3 e-러닝 솔루션 브레인파워 기획 관련특허작업 진행
2004. 8 브레인파워 개발 완료 특허출원
2004. 10 e-러닝 엑스포참가(산업자원부 주최)
2005. 10 대한민국창업대전 학생부 장려상(중소기업청장표창) 수상



▲ 메가브레인 이강일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직원들